

-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 계좌의 진정한 잔고를 참된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알려라. 모든 측면에서 슈리마트를 받아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 질문:** 너희들은 아버지와 무슨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
- 대답:** 너희들은 지각을 바친 자가 되어 아버지에게, “바바, 저는 당신에게 속합니다. 이 봄, 마음, 부는 모두 당신 것입니다” 라 한다. 그러면 바바는, “자녀들아, 천국의 주권이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한다. 이것이 너희가 맺는 계약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직한 마음이 필요하다. 굳은 믿음도 역시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진정한 잔고를 정직하게 아버지에게 알려야 한다.
- 노래:** 당신은 어머니이며 아버지입니다...

옴 산티.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자녀들에게 설명한다.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인 너희가 이제 슈리마트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이해한다. 쉬브 바바의 지시를 통해서 너희들은 다시 한 번 원래의 영원한 신인종교를 세우고 있다. 너희들 하나하나는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매 사이클마다 반드시 와서 브라마를 통해 자녀들을 입양한다는 것을 안다. 브라민인 너희들은 입양된 브라민들이다, 즉 너희는 그의 슬하에 들어왔다. 슈리마트를 따름으로써 우리들은 사라져버린 원래의 영원한 신인종교를 지금 또 다시 세우고 있다. 한 사이클 전에 일어난 행위와 주어진 가르침은 뭐든지 지금 똑같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드라마 계획에 따라 행위도 역시 행하고 있다. 슈리마트를 따름으로써 너희가 신성한 자아주권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이해한다. 이 군대에서도 일부는 사토프라단한 노력가들이고, 일부는 사토, 나머지 일부는 라조의 노력가들이며 그것은 각자의 노력에 달렸다. 일부는 코끼리를 탄 장수들이고, 일부는 기병, 나머지는 보병들이며, 이런 이름들이 주어진다. 너희 자녀들에게는 너희가 은밀하다는 행복이 있다. 물리적인 무기들은 쓰이지 않는다, 여신들이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무기들 등은 지식의 무기들이다. 무기의 사용은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것이다. 그들이 물리적인 칼 등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지식의 화살이라고 불린다. 지식의 소라고등, 지식의 원반, 지식의 철퇴도 역시 팔을 넷 가진 형상의 장식물로 묘사되며, 이 모든 것이 지식의 측면이다. 집에서 살면서 너희가 연꽃처럼 순수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도 역시 설명되어 왔다. 그들이 연꽃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 가정에서 연꽃처럼 지내면서 너희가 한 분 뿐인 아버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지식이 너희의 지각에 들어있다. 이것은 버림의 카르마 요가다. 너희가 창조한 피조물도 역시 너희가 돌봐야 한다. 너희가 서로를 대하는 상호작용이 전에는 슬픔을 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너희들은 이제 이해한다. 너희들은 계속 서로에게 슬픔을 주었다. 여기서의 행복은 까마귀 뚱처럼 더럽다. 모든 이가 곤충처럼 더러워졌다. 낮과 밤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이해한다. 아버지는 우리를 천국의 주인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지옥의 주인들이다. 지옥에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느냐? 오직 너희 자녀들만이 이런 것들을 듣고 이해한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 지식을 설명하고 있다. 천국은 오직 자녀들만을 위해서 있다. 오직 자녀들만이 각자의 노력에 따라 등수대로 명확히 이해한다. 우선 첫째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을 가진 지각이 승리한다. 굳은 믿음은 유지된다. 굳은 믿음이란 그들이 쉬브 바바를 기억할 것이고 행복의 수은주가 높이 솟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그러면 그들은 지각도 역시 바친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자녀들은 말하기를, “바바, 저는 당신에게 속합니다. 이 봄, 이 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한다. 아버지도 역시, “천국의 왕국이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한다. 이것이 어떤 거래인지 봐라! 너희는 진실 되고 정직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어떤 자녀에게 무엇이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알 것이다. 너희들은 바바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아버지는 아주 잘 이해되게 분명히 설명한다. 나는 가난한 자들의 주님이다. 부유한 자들은 버려야 한다는 데 대해 가슴이 오그라들지만, 가난한 자들은 곧장 모든 것을 다 얘기한다. 사업 등을 할 때 사람들은 번 데서 1페니, 2페니, 또는 4페니를 따로 떼어둔다. 기부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진 자들은 자선을 위해 좀 더 많이 쟁겨둔다. 무엇을 주든 그들은 그것을 신의 이름으로 준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 생에 일시적인 행복을 받는다. 대학, 순례자들을 위한 무료 휴식처, 병원 등을 짓는 사람들은 자비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다음 생에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그들은 아주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거나 대학에서 공부를 잘할 것이다. 내가 그 모든 것도 역시 준다. 나는 비전을 허락하는 분이기도 하다. 나는 모든 이의 거래내역을 갖고 있으며, 이런 것들은 드라마에 따라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사원 등까지도 지을 것이다. 자선을 위해서 뭔가를 따로 떼어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그들은 공장 등으로 번 데서 돈을 따로 떼어두었다가 그 다음에 사원을 짓는다. 일부는 자기의 대학 등을 짓기도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신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으며, 신이 보답으로 뭔가를 줄 것이라고 얘기한다. 사심 없이 봉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건 사심 없는 봉사가 아니다. ‘사심 없는’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사심 없이 봉사하기란 어느 누구에게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아버지가 이미 설명해줬는데, 왜냐하면 그것의 결실을 반드시 받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제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너희는 직장에 다녀야 하고, 모든 것을 다 돌봐야 한다. 자녀들은 지금껏 얼마나 저축했는지 계좌 내역 등을 아버지에게 알려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는, “앗차, 너희가 가난하다면, 만일 수입이 없다면, 자식들을 온전히 부양할 수 없다면, 그런 경우에는 동전 한 놈만 보내라,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의 21생을 위한 불멸의 소득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것이다. 다른 것은 일시적인 행복을 위한 것인 반면, 이것은 21생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또 직접적이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너희는 씨앗을 심어야 한다. 수다마는 쌀을 한 줌 주고 그 보답으로 21생 동안을 위한 궁전을 받았다. 그는 가난했지만, 그것은 부자가 다이아몬드를 한 줌 준 것과 같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각자는 어느 정도로나 해야 할지 개별적으로 지시 받는다. 어떤 이들에게는 비용을 얼마나 내는지 묻고, 만일 여구 약간만 저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조언해준다. 너희 자신을 위해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라, 어려울 때 그것이 유용할 터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뭘 해야 할지 지시가 내려질 것이다.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 너희 집에 큰 방을 하나 잘 꾸며서 딸들이 거기에 와서 봉사할 수 있게 해라. 대형병원들이 지어지는데 이런 장소들에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니 크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돈이 많으면 이 병원 겸 대학을 열어라. 마을마다 각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건강과 부를 유산으로 차지하려고 참으로 많은 자녀들이 올 것이며, 그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왕국을 차지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21생 동안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아이들을 최대로 온전히 돌봐야 한다. 현인들과 성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무엇이 주어지든지 오직 그들 자신과, 그들의 산야스 가족을 확장하는 일, 또는 그들의 장소를 넓히는 데에만 쓴다. 여기서 너희들은 각자의 노력에 따라 옥좌의 주인이 된다. 이것은 너희가 받는 유산이다. 자녀인 너희 모두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는다. 아버지는 그저, “자녀들아, 너희들은 나를 잊었다”라는 말만 한다. 너희는 참으로 많이 헤매며 돌아다녔다. 자갈과 돌에서 나를 찾아다님으로써 사람들은 발바닥이 닳았다. 이 역시 드라마에 정해져 있고 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은 태양왕조에 들어간 다음에 달 왕조로 들어갔고, 그래서 확장이 계속되었으며, 너희는 계속 환생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지각에 들어있다. 나는 신봉의 결실도 역시 주는 분이다. 돌로 만든, 살아있지 않은 형상이 뭘 줄 수 있느냐? 슈드라 신분계층에 속하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브라민 계층에 속한다. 슈리마트를 따름으로써 우리가 원래의 영원한 신인종교를 다시 한 번 세우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 우리는 한 사이클 전에도 이렇게 한 다음에 84생의 사이클에 들어왔다. 이슬람교도들과 불교도들 역시 모두 부차적인 줄거리이며, 연극 전체가 바라트에 바탕을 두고 있다. 너희는 신인들이었고, 악마들이 되었다. 라반이 들어온 탓에 너희는 죄의 길로 떨어져서 사악해졌고 타락이 시작되었다. 타락이 처음에는 사토프라단하게 시작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사토, 라조, 타모가 되었다. 아버지가 설명하는데, 지금 이때에는 나무 전체가 썩을 시점에 도달했으므로 지금 그것이 끝나야 한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신인종교가 다시 한 번 세워지고 있다. 그것은 사이클마다 거듭해서 세워지지만 어디에도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주된 것은 이것이 신의 말씀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신은 단 한 분뿐이다. 일단 편재의 개념이 생기면 신봉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 그들이 누구에게 “오 신이여!”라 하느냐? 만일 그가 편재한다면, “오 신이여!”라는 말조차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이가 사토프라단, 사토, 라조, 타모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런 이유로 모든 이가 지금 불순하고, “오 정화자여, 오소서!”라고 노래 부른다. 너희를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온다. 너희들은 지금 순수해지고 있다. 슬플 때는 모든 이가 다 신을 기억한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은 “오 신이여!”라며 신을 기억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를 모른다. 너희들은 지금 지식을 받고 있다. 너희는 다시 한 번 신인들이 되고 있다. 지금 이것은 청산의 시기이니, 모든 이가 다 카르마의 잔고를 정리해야 된다. 모든 이가 다 지금 묘지 속에 들어있다. 아버지가 와서 모든 이를 잠에서 깨운다. 다른 누구에게도 이 지식이 없지만, 더 많은 이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며 그들은 브라민이 될 것이고 확장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바바에게, “제가 만일 오늘 몸을 떠난다면 제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의 단계에서도 너희는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아직도 바바를 더 기억할 여지가 너희에게는 여전히 많다. 바바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너희 모두 노력가들이다. 마지막 즈음에는 너희가 완성될 것이다. 일단 시험이 끝나면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너희가 가까워지면 비전을 받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각자가 어떤 지위를 받을지 너희들은 이해할 것이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다. 영혼들은 몰지각해졌다. 무가치한 빈 조개껍데기에서 너희를 다이아몬드로 바꾸기 위해 아버지가 지금 너희들을 지각 있게 만들고 있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자녀들아, 이것은 전쟁터이며 수많은 폭풍이 불어닥칠 것이다. 온갖 종류의 질병들이 발생할 것이다. 너희가 가진 재능으로 지혜로워져라. 그 어느 선생도 너희를 둉지 못할 것이다. 승리와 패배가 너희 자신의 손에 달렸다. 선생이 이르는데, 이것은 너희와 마야의 전쟁이다. 마야가 너희를 아주 세게 밀쳐 넘어뜨릴 것이다. 너희가 의식하는 소망과는 반대로, 5년이나 6년간 정확하게 이 길을 걸어온 후에도 잠조차 오지 않을 정도의 위세로 여전히 폭풍들이 너희에게 불어닥칠 것이다. 용감한 자들은 지치면 안 된다,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은 한쪽에선 라반이, 반대쪽에서는 신(라마)이 끌어당기는 작은 게임을 하며 놀기도 한다. 너희는 기억하며 머물기를 원하지만 마야가 폭풍을 몰고 오는데, 그런 일은 어쨌든 일어나겠지만 너희는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너희는 카르마 요기들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바를 기억하는 연습을 해라. 너희는 모든 면에서 은밀하다. 너희의 은밀한 군대가 기억된다. 너희는

알려지지 않은 전사들이지만, 아주 유명하다. 딜왈라 사원은 너희들의 기념물이며, 락수미와 나라얀을 기리는 것이 아닌, 무명의 전사들을 기리는 사원이다. 나중에 락수미와 나라얀이 되는 이들은 바로 이들이다. 너희의 모든 것이 은밀하다. 물리적인 칼들 등은 없고, 그저 지각을 사용할 뿐이다. 영혼들이 오랫동안 신과 헤어져 지냈다는 것도 역시 노래로 불린다. 인간들은 구루가 되지만, 오직 무체인 한 분만이 사트구루다. 그는 정화자라고 불린다. 그러니 그는 사트구루이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철시대에 속하는 자들이다. 모든 이가 외치고 손뼉을 치면서, “모든 시타들의 라마는 정화자 한 분 뿐이라네”라고 노래 부른다. 이제는 지식 전체가 너희의 지각에 들어있다. 너희는 각자, “나에게 혹시 원가 결함이 있는지는 않은가?”라고 스스로 점검해봐야 한다. 화와 정욕의 악령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일부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폭풍이 자꾸만 오네요”라고 편지를 쓴다. 바바가 이르는데, 폭풍들이 많이 와서 너희에게 괴로움을 주겠지만, 너희는 무척 조심해야 한다. 너희는 바바를 기억해야 된다. “바바, 이것은 당신의 기적입니다!”라고. 너희들이 왕국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바라트에서 우리는 신의 조력자들이다. 사람들은 무체인 수바의 탄생을 축하하지만, 그가 언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른다. 쉬브 바바가 프라자피타 브라마를 통해서 너희에게 유산을 주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이해한다. 이것은 조부가 물려주는 유산이다. 일반적으로 그는 “바바, 바바”라고 불린다. 다다와 바바가 있다. 바바는 영혼이고 다다에게는 육신이 있다. 지고의 영이 이 사람을 통해서 유산을 주고 있다. 이것을 너희의 지각에 담고 있어야 한다. 너희들은 슈리마트를 따라야 한다. “만마나바브”와 사이클의 중요성은 (이해하기가) 아주 쉽다. 너희들은 또 스와다르샨차크라다리도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스와다르샨차크라다리인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식물들은 비슈누에게 보여져 왔다. 그가 우리들의 아버지이며 선생이라는 믿음과 그가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트구루가 직접 우리를 데리고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첫째로 필요하다. 그에게는 아버지, 선생, 구루,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너희의 지각에 자리 잡지 못한다. 집에서 살면서도 애착에서 자유로워져라. 우리는 한 분 뿐인 아버지에게 속한다, 오직 이것만 너희의 지각에 머물게 해라. 너희들은장님을 위한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친구나 친척 등과 대화할 때마다 그에게, “정화자,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과 당신의 관계는 뭐죠?”라고 물어봐라. “저 분이 당신의 세속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은 누구의 아버지일까요?”라고. 그들은 틀림없이,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앗차. 아버지는 천국의 창조자다. 바라트는 틀림없이 천국이었지만, 더 이상은 천국이 아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무한한 아버지에게서 너희의 유산을 차지해라. 이것은 너희의 권리다. 그를 기억함으로써 너희는 그리로 갈 것이다. 요점들이 참으로 많다. 너희는 지각으로 그 모든 것을 훈습해야 한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잊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테.

실천 요지:

1. 너희에게 혹시 들어 있을지 모르는 정욕이나 화 같은 결함들을 모두 없애고, 신의 참된 조력자가 되어라. 폭풍을 조심해라, 그것에 패배당하지 마라.
2. 수다마가 한 것처럼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쌀을 한 줌 주고, 21생 동안 왕국을 차지해라.

축복: 지식의 힘으로 신체감각들을 통제하는 자아의 성공하는 주인이 되어라.
너희를 돋는 일꾼들을 매일 법정에 세우고 너희의 신체기관이나 일꾼들 중 무엇 하나라도 거듭해서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라. 너희가 과제를 자꾸자꾸 잘못 행하면 그 산스카르가 굳어진다. 그러므로 지식의 힘으로 체크하는 것과 더불어 그것을 바꿔라, 그러면 너희가 자아의 성공한 주인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기들의 주권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는 그런 영혼들과 접촉하게 되는 영혼들은 모두 그들에 대해 만족한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이에게 감사받을 가치 있게 된다.

슬로건: 매 순간 순간 카란카라반하르 바바를 기억하면 “나”라는 에고가 올 수 없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